

## “완전히 새로운 KBS, 속도를 내겠습니다”



어느덧 2018년의 절반이 지났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KBS’를 만들어 시민들께 돌려드리자는 목표로 새롭게 출범한지 곧 100일을 맞는다. 지난 석 달, 구성원들은 각 분야에서 시청자 신뢰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들을 수행해왔다. 7월 9일 타운홀 미팅 형식의 직원조회에선 구성원들이 모여 지난 발자국을 돌아보고 앞으로 만들어 나갈 새로운 KBS의 밑그림과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신뢰도 1위의 KBS 저널리즘 회복 반드시 이를 것

양승동 사장은 이날 100일을 돌아보며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해 준 덕에 KBS가 조금씩 시청자의 품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감사를 전했다. 뉴스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고, 주목받을만한 탐사보도들과 새로 론칭한 프로그램, 라디오가 호평을 받고 있다고 평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시대에 있어서의 공영방송의 역할과 국제뉴스, 재난방송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다며 신뢰도 1위의 KBS 저널리즘 회복이라는 목표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 중심 조직...과감한 투자 약속

양승동 사장은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숙제로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양 사장은 취임 당시 신뢰도 1위의 KBS 저널리즘 회복이라는 목표와 함께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 중심 조직’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으며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덧붙여 지난 10년간 흑자 경영만을 위해 끊임없이 제작비를 긴축하고 현상 유지에만 급급했던 것에서 벗어나 “먼저 투자하고 그 성과를 기다리겠다. 그 과정에서 실패할 수도 있지만 다음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 부족한 방송 인력 충원, 콘텐츠 경쟁력 위해 수백억 대 투자

이어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인력과 예산’ 계획을 거론했다. 우선적으로 예능국 인력을 보강하고자 경력직 예능 PD와 조연출 AD를 뽑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역국의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올해 신입사원 채용 때 적극 반영하고 이를 위해 조만간 정밀한 지역국 인력 수요조사를 할 것이라 예고했다. 앞서 콘텐츠 경쟁력을 위해 투자를 약속한 양 사장은 시급하게 2~3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를 과감하게 투자해 2049, 3059 시청자를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드라마와 예능에서 어떻게 킬러 콘텐츠들을 생산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으고 과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족한 편집기와 편집실, 열악한 제작환경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표명했다. 이 밖에도 비정규직 등 근로조건 개선 문제,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와 직급체계 개편 문제, 디지털 도달률을 높이는 문제, 디지털 워크플로우 개선을 위한 투자, 또 라디오와 뉴스 경쟁력 강화 등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오는 가을에는 새로운 KBS, ‘NEW KBS’의 구체적인 계획을 구성원과 시청자에게 선보이겠다고 약속했다.

새 체제 출범 100일  
변화와 혁신 Start!  
·  
콘텐츠 경쟁력 강화 위해  
과감한 투자



# 달라진 KBS

## 지난 3개월의 발자국을 한눈에

활동 과제	경과
뉴스 형식·내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뉴스 앵커 교체</li> <li>뉴스 홈페이지·모바일 개편</li> <li>대담 형식의 심층성 강화</li> <li>2049 세대 뉴스 선호도 상승</li> </ul>
탐사보도팀을 탐사보도부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월 4일 방송된 '국회의원 출장 지원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7월 4일, '국정원 4대강 민간인 사찰' 문건을 입수해 단독 공개</li> </ul>
슈퍼워크 시청률 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12 북미정상회담, 6·13 지방선거, 러시아 월드컵 등 슈퍼워크 기간 KBS 평균 시청률 우위</li> </ul>
저널리즘 회복 위한 시사 프로그램 론칭과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lt;저널리즘 토크쇼 J&gt; 신설</li> <li>시사 라디오에선 전문성 강화한 새 진행자와 심층성 더한 내용으로 호평</li> </ul>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실과미래위원회 설치 운영</li> </ul>
성폭력 없는 회사, 남녀평등의 조직 문화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 평등 센터 출범 준비 중</li> </ul>
제작 현장의 자율성 창의성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장 임명동의제 시행</li> <li>전략기획실 예산 통제 기능 각 본부별 이관</li> </ul>
시간외실비 규정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습직원 시간외실비 보장</li> <li>시간외실비 3일 이내 신청 가능</li> </ul>
인력운용 효율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직 근무제도 개편</li> </ul>
경영 투명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영진 업무 추진비 사용내역 5월부터 홈페이지에 공개</li> <li>KBS 이사회 속기록 공개 결정</li> </ul>
시청자와 직접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성, 연령별 다양성을 반영해 시청자위원회 운영 규정 개선, 공모 절차 도입</li> <li>시청자청원제도 도입, 시청자 관련 사이트 통합 작업 진행</li> </ul>
사내소통 강화 및 기업문화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3기 신입사원 입사식 야외 광장서 첫 개최</li> <li>신관 계단 복 조형물 처리</li> <li>코비스 게시판 개편</li> <li>세월호 가족 꽃잎편지전</li> </ul>



## ‘시민성·보편성·품질’로 시민에 다가가야

“신뢰 바탕된 ‘공영 미디어’가 KBS 살 길”

KBS의 미래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회사 전체 차원에서 전략적인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이도경 전략기획실장을 만나보았다.

### 새 체제 출범 100일, 주요 목표와 성과는?

양승동 사장은 취임 당시 KBS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다. 집행부는 이를 위해 KBS를 4가지 플랫폼으로 만들기로 했다. 첫 번째는 뉴스 보도 신뢰회복에 중점을 둔 진실의 플랫폼으로 뉴스 혁신,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신설과 탐사보도부 개설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두 번째는 직원들이 현장에서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창의의 플랫폼이다. 세 번째는 잘못된 과거로부터 단절하는 공정의 플랫폼으로 얼마 전 진실과미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민의 플랫폼이다. 이를 위해 지역국 활성화와 시청자 위원회 규정 개선, 시청자 청원제도 신설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 공영방송 KBS의 새로운 비전을 묻고 싶다.

권력보다 시민,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KBS 생존에 있어 첫 번째 열쇠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다채널, 다매체 환경에서 현대 공영방송의 핵심 요소를 시민성(citizenship)·보편성(universality)·품질(quality)로 보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해 공영방송이 커다란 역할을 해야 한다. 건전한 여론을 형성시키고, 시청자로 하여금 미디어 이용 능력을 키르게 해야 한다. 다양한 정보의 소통, 미디어 비평이라든지,

미디어 교육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보편성이다. TV를 안보는 세대가 늘고 있고 스마트폰 등 다양한 채널로 콘텐츠를 접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얼마나 많은 사회구성원에게 KBS의 존재 이유를 확인시키느냐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품질이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라고 하면 그 사회 문화의 척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에 걸맞는 고품질의 콘텐츠로 시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이 세 가지에 비추어 공영방송의 역할도 공영 미디어로 확장돼야 한다고 본다.

### 미디어 환경 급변 시대, 전략기획실에서 인식하는 현 상황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처하려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매체 전략 중심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플랫폼, 콘텐츠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한국 미디어계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미디어의 공세적 진출, 한반도 정세의 급격한 변화, 과거 잘못된 제도적 문제를 바로 잡는 과정에 놓여있다. 이 상황에서 KBS가 제대로 대처하고 자리를 잘 잡는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 변하지 않는 KBS의 가치가 있다면?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KBS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87년 6월항쟁을 거쳐 지난해 촛불혁명으로 시민 사회가 성장했다. 국민과 시민의 신뢰를 얻지 않으면 KBS의 존재 가치는 없다. KBS는 국민의 방송이다.

### 앞으로의 계획은?

자원은 한정돼있고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결국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고 본다. 물적, 인적 자원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구성원의 동의가 있어야 선택과 집중도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본부별 타운홀 미팅과 지난 9일 있었던 직원조회 등을 통해 오는 가을 KBS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 하려고 한다.

### 새로운 KBS 100일을 함께 하고 지켜본 KBS 구성원들에게 당부사항이 있다면?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KBS의 역할이 새롭게 변해야 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권력보다는 국민의 편에 서야 하고, 직위·직급보다는 전문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상명하복보다는 자율과 창의로서 조직과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우리 조직원과 사우들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다. 하나의 개혁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안을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 여성 파워 **UP** 하지만 이제 ‘시작’

KBS에서도 ‘유리 천장’이 깨지고 있다. 오랫동안 남성 사우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던 주요 자리에 속속 여성 사우들이 진출해 맹활약을 보이고 있다. 가정에서는 세 자녀의 어머니면서 동시에 회사에서 자신의 전문적 입지를 탄탄히 다진 ‘슈퍼맘’ 김수자 인천사업지사장과, KBS 보도본부 사건 기자들을 통솔하는 ‘시경캡’ 노윤정 기자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 주역들을 KBS 사보가 만났다.



## “후배들의 디딤돌이 되고 싶다”

###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궁금하다.

인천사업지사는 KBS 전체 수신료 수입의 8.3%를 책임지고 있다. 각 사업지사는 수신료 업무를 최일선에서 처리하는 부서로서 TV수상기 발굴, 한전 및 검침사 관리, 민원 처리 등이 주요 업무이다. 우리 지사는 지역 특성상 도서 지역이 많아 실무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고 타 지역 대비 강성 민원도 많아 대민 업무에 어려움이 있지만 수신료 ‘공평 과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원 발굴과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수고하는 직원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을 통해 취합된 시청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그동안 ‘여성 지사장’이 없었던 이유는?

과거에는 여사우 채용 인원이 적다보니 기본적으로 승진 대상자가 없었던 점도 있고, 동시에 회사의 근무 환경이 전반적으로 남성 중심적인 요소가 많아서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능력을 키우기가 힘들었던 점도 있다. 출산과 육아로 여성 사우들의 경력이 단절되는 기간이 있다 보니 부서별로 여직원 배정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지금은 육아휴직이 일반화되었지만 내가 아이를 낳을 때는 부서에 ‘민폐’를 끼치는 분위기여서 눈치를 봐야했고 아예 육아

휴직을 실천할 엄두를 못 내는 직원들도 적지 않았다. 사회적으로도 그랬고 KBS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 업무 특성상 여성으로서 힘든 부분은 없었는가?

‘여성’이기 때문에 일 자체가 힘든 적은 없었다. 다만 여성이기 때문에 중요 업무를 잘 배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속상한 적은 있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나 스스로도 선뜻 주요 업무를 배정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그냥 지켜보는 측면도 있었다. 앞으로 직원들에게도 중요 업무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길 바라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 믿는다.

### 일과 가정의 양립, 현실적으로는 어떤가?

한국 사회에서 육아는 ‘개인’의 문제이고 특히 ‘엄마’의 문제로 여겨져 왔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게 육아지만 당연히 여성이 짊어져야 하는 책임처럼 전가돼 왔다. 나도 한창 아이가 커갈 때는 너무나도 힘들었던 기억이 많다. 특히 예상치 못했던 셋째 아이가 생겼을 때는 주위 사람들이 출산을 만류하기도 했고 나 스스로도 한 달 간이나 고민하면서 회사를 다녔던 적이 있다. 육

아가 회사 일에 지장을 줄까봐 눈치를 봐야 했고 그러다 보니 몸과 마음이 항상 지쳐있었다. 그러나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야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지고 그래야 우리도 그 속에서 건강한 미래를 누릴 수 있다. 앞으로의 후배 여사우들은 나와 같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가 정착되길 바란다.



김수자 사우  
인천사업지사 지사장

### 사내 ‘성 평등’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나는 페미니스트도 아니고 남들 앞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성격도 아니며 이렇게 사보에 나올 만한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내가 사보에 실리게 된 것은 최초의 여성 사업지사장이라는 점 때문인데, 그만큼 우리 회사가 그동안 여성 관리자를 키우지 않았다는 얘이기도 하다. 앞으로는 ‘여성 관리자’라는 말 자체가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는 사회가 돼야 한다. 모두에게 평등한 업무의 기회, 보직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노윤정 사우  
보도본부 사회 2부 캡

## “막강 여기자들은 KBS의 자산”

### 캡은 어떤 자리인가?

시경캡은 서울 지역 경찰서들을 출입하는 사건 기자들을 지휘 통솔한다. ‘현

장 반장’ 역할로 보면 된다. 사건팀 반장은 수습 기자와 젊은 기자들을 교육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각 언론사에서 상징적인 위치에 있다. 기본적으로 사건사고를 주로 다루는 팀이지만, 사회 여러 분야의 다양한 취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 사회 전반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 또 기사거리를 발굴하고 접근하는 방법을 제대로 익힐 수 있게 해주고 싶다. 첫 여성 캡인만큼, 부담감이 크다. 좋은 선례를 남겨야 한다는 책임감 속에 하루하루 업무에 임하고 있다.

### 언론계 ‘성 평등’ 실태를 평가한다면?

아직 턱없이 미흡하다. 현재 서울시경을 출입하는 캡이 모두 31명인데, 그 중 여성 캡은 3명 뿐이다. 신문사에서는 과거에도 간혹 여성 캡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래봤자 다섯 손가락 안쪽이다. 방송사에서는 KBS가 처음이라고 들었다.

KBS는 타사에 비해 여기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인 것 같다. 현재 KBS 사건팀 평균 15명 가운데 여성이 9명, 남성이 6명이다. 젊은 공채 기수 가운데는 여기자 비율이 80%인 기수도 있다. 여성 캡이 나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흐름이고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타 언론사 가운데는 아직도 공채 과정에서 여기자를 한두 명씩 요식적으로 뽑는 경우가 있다. 언론계 역시 ‘성 평등’ 정착을 위해 갈 길이 멀다.

### 업무 특성상 경찰을 매일 상대할 텐데, 여성으로서 힘든 점은 없는가?

나이 많은 남성들이 주 취재원 이다보니 아무래도 여기자로서 ‘핸디캡’을 절감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대표적인 예가 술 자리이다. 술을 강권하는 문화가 여전히 있고, 술을 사양하면 “여기자니까”라며 거리를 두는 모습을 종종 보곤 했다. 사실 취재 과정에서 여기자를 ‘기자’가 아니라 ‘여성’으로 대하는 취재원들도 적지 않다. 여성이라서 거리를 둔다거나, 혹은 반대로 여성이니까 배려를 해주십시오고 정보를 조금 더 알려주는 식이다. 그런 풍토도 개선돼 나가리라 본다.

### 최근 우리 사회에서 여성 이슈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미투’ 운동에서 시작해 페미니스트 집회까지, 민감한 사건들이 많았다. 이 과정에서 KBS 여기자들은 눈에 띄는 활약을 했다. 어떤 페미니스트 집회에서는 주최 측이 ‘여기자’들의 취재를 요구했는데 보낼 여기자가 없어 애를 먹었다는 언론사도 있다. KBS의 주요 자산이 된 여기자 후배들이 앞으로 많은 것들을 바꿔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아무리 급박해도 조금씩이라도, 항상 경청하라고 얘기해주고 싶다. 급하게 서두르고 욕심을 부리다보면 크게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 기자는 기본적으로 듣는 게 직업이다. 취재원 한 사람의 정확한 정보로 쓰는 단독 기사도 좋은 기사지만, 10명의 주변 취재원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시각을 담아내는 기사도 그에 못지않게 좋은 기사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다.

KBS 사보 특별 INTERVIEW

# 재미-의미 다 잡은 **1박2일** 판문점 편

“북한 주민들과 함께 외치고픈 1박~ 2일!”

남북 관계의 훈풍은 예능계에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6월 24일과 7월 1일 방송된 <1박 2일> '판문점 특집'이 그 예이다. 예능 사상 처음으로 판문점에 입성해 시청자들에게 몽클한 감동과 따뜻한 웃음을 함께 선사했다. 출연진인 차태현, 김준호, 김종민, 데프콘, 정준영, 윤시윤과 유일용 PD를 KBS 사보가 만났다.



Q 예능 첫 '판문점 녹화' 소감은?

- 차태현** '거기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한 일이었다. TV로만 봤던 광경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역사적인 장소에 발을 딛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경험이었다. 방송이 나간 뒤 주변 사람들은 “북한 군인들이 근처에 왔을 때 무섭지 않았는지” 묻곤 했는데 실제로 약간 소름 돋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서로 인사도 못 하고 눈치만 볼 때는 몽클하고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다. 시청자들도 함께 느꼈을 것이다.
- 데프콘** 이번 특집은 분단의 아픔을 다시금 상기해볼 수 있는 계기였다. 방송에 소개된 '돌아오지 않는 다리'는 이름 그대로 남과 북이 서로 넘을 수 없는 다리, 한번 넘어가면 돌아올 수 없는 경계선인데, 그걸 보며 여러 감정이 들었다. 세월과 함께 낡아버린 다리를 보며 이제 우리 민족에게도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기원했다.
- 김준호** 나는 그 다리의 이름을 새로 지어봤다. 바로 “왔다리 갔다리” 이다.(웃음)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다리가 아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다리가 됐으면 좋겠다.
- 윤시윤** <1박 2일> 멤버들은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촬영에 임했다. 보통 사람으로서 느끼는 '분단'에 대한 감정을 그대로 전달하려 노력했다. 시청자들도 우리가 현장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함께 느끼셨을 거라고 본다.

Q 내 마음속에 남은 '판문점'은?

- 정준영** 판문점은 남북 군인들이 대치하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곳일 줄 알았는데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평상시에는 CCTV로 경계를 선다는 얘기를 들었다. 언젠가는 아무런 경계와 감시 없이 서로를 편하게 마주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 현장에서 만난 남과 북의 군인들 모두 우리의 친구이고 형제 같았다.
- 김준호** 사진도 나가나요? (건물 창밖으로 군사분계선을 찍은 사진을 가리키며) 이 '방지 턱'이 군사 분계선이다. 너무 신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심은 '평화의 나무'도 인상 깊었다. 우리는 보통 '개그와 예능'을 심는데 '평화와 변영'이 심어진 그곳에서는 마음이 숙연해졌다.
- 윤시윤** 워낙 가보기 어려운 장소라 기념사진도 찍고 싶었는데 자칫 오해를 사거나 결례가 될까 봐 서로 눈치를 보며 출연진과 제작진 모두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언젠가 마음 편히 웃고 떠들고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을 때 다시 또 가보고 싶다.

Q '공영 방송'으로서의 이번 특집 의미는?

- 유일용 PD** 남북 관계가 개선되었기에 가능한 특집이었다. 그러나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적 관심'이었다. 평화를 향한 국민들의 염원이 이번 특집의 동력이 되었다. 공영방송은 결국 국민 정서와 함께 간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얼마나 많은 분들이 판문점과 DMZ를 궁금해 했겠는가? 그 갈증을 공영방송이 풀어드려야 한다. 이번 특집은 그런 의미를 갖는다.
- 데프콘** <1박 2일>은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예능인데 특히 이번 편은 전쟁을 겪지 않은 어린이와 젊은 세대에게 많은 걸 느끼게 해준 계기가 된 것 같다.
- 차태현** 맞다. 나도 이번 방송은 아들과 같이 봤다. 이것저것 설명해줄 거리가 많았다. 아들이 굉장히 집중하면서 차분하게 봤다.

Q 앞으로의 '특집' 계획은?

- 유일용 PD** 판문점 특집은 '시작'이길 바란다. 지금은 판문점이 우리가 갈 수 있는 최전방이지만 앞으로는 더 깊숙이 들어가 보고 싶다. 금강산 특집도 하고 싶고, 실향민과 함께 하는 방송도 만들고 싶다.
- 김종민** 북한뿐 아니라 해외 각국의 우리 동포와 교민들을 많이 만나보고 싶다. 우리는 모두 '한 뿌리' 아닌가.
- 윤시윤** 남과 북의 언어가 많이 다른데 '남북 커뮤니케이션 특집' 같은 걸 해보고 싶다. 북한 주민들을 주인공으로 출연시켜서...
- 데프콘** 나도 유 PD처럼 금강산 특집을 생각해봤다. 말로만 들어본 금강산 절경들을 직접 보고 소개하고 싶다. '평양에서 먹는 평양냉면' 맛은 어떨지도 궁금하다.
- 김준호** 앞으로 평양이든 신의주든 계속해서 '예능 최초로' 가보고 싶다.
- 정준영** 백두산 특집도 있다. 중국을 통해서가 아닌 북한을 통해 가보고 싶다. 북한 주민들과 "1박~2일!"을 외치는 그날을 기다린다.





<콘서트 7080> 여름 특집

# 가자! 청춘나이트!

1부 ▶ 7월 13일 금요일 밤 11:40, 1TV  
정수라, 채연, 이정용, 박상민 출연  
2부 ▶ 8월 3일 금요일 밤 11:40, 1TV  
클론, 박미경, 신델라, 소찬휘 출연



### 한 여름 더위 날려버릴 '청춘 나이트'로 놀러오세요!

800여 명의 관객들이 청바지에 흰 상의,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모여 있는 진풍경. 이곳은 <콘서트 7080> 여름 특집 '가자! 청춘나이트' 녹화 현장이다. 지난해에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가자! 청춘나이트'는 친구, 연인, 가족이 함께 드레스코드에 따라 옷을 맞춰 입고 무대를 즐겼다. 출연진도 화려했다. 클론, 박상민, 정수라, 소찬휘 등 과거한 시대를 풍미했던 음악이 흘러나오자 관객들은 마음껏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하면서 빛나던 청춘, 그 때 그 시절로 돌아갔다. 특히 박상민의 무대 때 모두가 박상민의 트레이드마크인 선글라스를 끼고 공연을 함께하는 깜짝 퍼포먼스까지 펼쳐지며 즐거운 분위기를 이어갔다.

### 화려한 조명과 함께, 그 옛날 어느 클럽으로 타임슬립

이번 특집의 하이라이트는 그 옛날 나이트클럽을 연상케 하는 무대 조명이었다. 일명 '사이키 조명'이라고 불리는 스트로브 조명으로 최대한 공연장을 댄스플로어처럼 만들었는데,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공간에서 즐거운 댄스파티가 펼쳐졌다. 이경일 조명감독은 "흰 상의에 청바지를 모두 맞춰 입고 객석을 꽉 채운 관객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객석을 촌스러운 옛날 나이트 느낌으로 꾸며보았는데, 녹화 내내 자리에 앉지도 않고 춤을 추는 관객들을 보면서, 준비하느라 며칠을 고생했지만 이 맛에 이 일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3시간 넘게 이어진 녹화에도 지치지 않는 열정을 보여준 뜨거운 여름날의 기억은 <콘서트 7080> 여름 특집 방송 '가자! 청춘나이트'에서 함께할 수 있다.

## 복잡한 일상 잠시 안녕~ 여름 휴가 떠나요!

# 회사 콘도로 여름 휴가 즐기기

덥고 습한 날씨로 힘 빠지는 여름, 복잡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보는 것은 어떨까. KBS에서는 임직원들의 재충전을 위해 회사 콘도를 지원하고 있다. 아직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면 회사 콘도를 눈여겨보자.



### 회사 콘도 48곳, 성수기에는 사전 예약 필수

KBS에서는 한화리조트, 대명리조트 등 주요 콘도사에 48 곳의 휴양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성수기에는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해 여러 지역에 임차분을 추가로 확보한다. 비수기에는 필요할 때 코비스에서 신청 및 예약이 가능하지만, 성수기에는 사전 예약이 필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매년 여름/겨울 성수기를 지정해 해당 기간 동안의 콘도 예약을 별도로 관리한다. 성수기 기간은 매년 조금씩 유동적이니 코비스 공지사항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약콘도신청'에서 신청을 받고 매일 오전(평일 기준) 재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여름 성수기 콘도 배정에서는 강원도 삼척이 14대 1의 경쟁률로 사우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이었다. 2위는 강원도 양양(12:1), 3위는 강원도 설악과 경상남도 거제(9:1) 순으로 나타났다.

### 노쇼에는 벌점, 비수기 이용에는 가점

회사 콘도는 점수제로 운영되어 같은 기간 같은 콘도에 신청할 경우 점수가 높은 순으로 배정된다. 입사년도에 따라 기본점수가 부여되고 회기년도(2월 1일~1월 31일)가 시작될 때마다 점수가 주어지는데, 콘도를 예약하고 이용하지 않는 노쇼를 할 경우 감점이 되며 평일 비수기에 콘도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본인의 점수는 '콘도신청>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점수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콘도신청>콘도사용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잔여 물량을 노려보자

올해 여름 성수기 콘도는 6월 28일부터 7월 6일까지 2차에 걸쳐 배정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2차 배정 이후에도 잔여분이나 취소분이 생길 경우 '코비스 홈페이지>e-help>디지털오피스>콘도신청'에

사보 꿀팁

### 하반기 복지지원금이 들어왔어요!

7월 2일 하반기 복지지원금 배정이 진행되었다. 복지지원금은 7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카드 사용 및 승인 후 2주 이내에 차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모바일 복지물앱

또, 지난 4월 복지지원금 차감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제 모바일 앱에서도 카드번호 입력 없이 편리하게 복지지원금 차감 신청이 가능하다. 모바일 복지물은 기존 복지물 사이트에서 '나의복지>모바일 센터'로 접속해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뮤직뱅크에서 K팝 접하니 자신감이 생겼어요.”

지난 7월 6일, 뮤직뱅크 리허설이 한창이던 시각,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INKAS)'의 초청으로 방한한 캐나다 입양 청소년 18명이 양부모들과 함께 KBS ON 견학홀과 뮤직뱅크 녹화 현장을 찾았다.

## “캐나다인이지만 이제는 한국도 나의 일부예요.”

2001년 생후 5개월에 캐나다로 입양을 가게 된 필립 락한스(17)군은 2016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 한국 방문이다. “예전에는 한국에 관한 모든 것, 한국 사람이란 걸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첫 방문 때 한국문화를 처음 접하게 되었고 그 이후 캐나다에 돌아가서 한국음악도 많이 듣게 되고 K팝을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캐나다에서 K팝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다는 필립군은 K팝 덕분에 두 나라 사이에 혼란스러웠던 자신이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위축 됐었는데 지금은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정체성이요? 완전히 캐나다인이죠. 하지만 2년 전 뮤직뱅크에서 K팝을 접한 후부터는 한국인이라는 느낌도 같이 들어요”

## “인터넷으로만 보던 뮤직뱅크, 직접 보니 감회가 새로워요.”

이 날 해외입양인 가족 방문단은 뮤직뱅크 리허설 막바지 부분인 '뉴이스트 W(북극성, Dejavu)와 사이니(네가 남겨둔 말)' 2팀의 공연을 관람했다. K팝 팬이라는 나오미 양(17)은 “캐나다에서도 유튜브로 뮤직뱅크를 자주 찾아봐요. 생각보다 무대가 너무 작았지만 화려한 조명에 분위기도 좋았고, 객석에 앉아 K팝 가수들을 가까이서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흥미로웠어요. 캐나다에서는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가수들이 많지 않거든요. 리허설인데도 실제 공연처럼 프로다웠어요.”라고 말했다.

## 당당해진 아이들...많은 변화 생겨

양부모들에게도 이번 방문은 의미가 깊다. 필립군의 양어머니는 “아이가 캐나다에 돌아가서도 K팝과 한국 문화를 즐기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자긍심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한국방문이 그와 가족들 모두에게 매우 뜻깊은 경험이라고 말했다. 또한 K팝 대중문화로 세계인들의 마음속을 흔들고 있는 그들의 자녀의 나라, '한국'은 흥미롭고 대단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이들이 K팝을 접하고 많은 변화가 일어난 건 사실이에요. 우리 아이는 옷과 헤어스타일을 아이돌같이 하고나서 자신감이 많이 높아졌어요. 당당하게 등교하는 뒷모습을 보며 행복해서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몇 달 정도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지만 아들에게 모든 선택을 맡길 예정이에요.”

## 2014년부터 시작...“KBS 만이 할 수 있는 일”

1999년부터 매해 국외 입양인 가족 초청행사를 진행하는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INKAS)의 정애리 회장은 KBS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K팝과 방송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KBS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기상캐스터 체험과 앵커 체험이 가장 흥미로웠다고 해요. 사춘기의 정체성의 혼란과 반항심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경험은 입양 청소년들에게 큰 힘이 되고 KBS 만이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KBS는 지난 2014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입양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KBS 방문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이번이 3번째다.

### 사보가 만난 사람

## “공동취재 주목도 높아...디지털 기사도 계속 쓸 것”

모니터링이 깐깐하기로 유명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선정한 5월의 좋은 보도상에 KBS가 이름을 올렸다. 수년 만의 일이다. KBS가 뉴스타파, 프레시안과 공동으로 삼성전자가 자사 임원을 기술 유출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거짓 진술과 증언 방해 등 불법적 행태를 일삼은 것을 파헤쳐 고발하는 보도였다. 언론사간 협업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은 이 보도를 기획하고 직접 심층기사를 쓴 기자가 현직 국장급 보직자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임장원 통합뉴스룸 국제주간을 KBS 사보가 만났다.



임장원  
통합뉴스룸 국제주간

수상을 축하한다. 이번 공동취재는 어떻게 기획했나? 디지털뉴스부에서 디지털 기사를 쓰던 지난해 여름 ‘역물하게 기술유출범으로 몰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파업 기간에 틈틈이 취재를 했는데,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파업이 끝나질 않아 기사를 쓸 수 없었다. 어떻게든 실제적 진실을 알려야겠다 싶어서 타사 기자들을 접촉했다. 삼성에 굴하지 않을 매체, 심층보도 역량과 시간을 가진 기자를 찾다보니 뉴스타파와 프레시안 기자로 압축됐다. 처음에는 이들 매체에 관련 자료를 넘기려 했는데, 시간을 더 갖고 공동취재를 통해 동시보도하기로 의기투합했다.

### 우리 언론계 풍토에서 언론사간 공동취재는 매우 드물다. 경험해보니 어떤가?

특종이나 속보 경쟁을 벗어나 저널리즘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었다. 공동취재라는 프레임이 기사에 대한 주목도를 높여줬고, 개별 언론사가 가진 수준 이상의 신뢰 자산을 기사에 부여해줬다. 취재는 함께 했지만 보도에는 각각의 관점과 개성을 담았기에 뉴스 수용자들이 다각적으로 사안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도 긍정적이다. 공동취재가 절실

한 영역이 있다고 본다. 지상파 방송 3사의 탐사프로그램들이 마지막 성역인 종교권력에 대해, 진보와 보수 매체가 진영 논리로 왜곡되기 쉬운 사회적 이슈에 대해 공동취재를 한다면 '기레기'로 불리는 한국 언론의 신뢰도와 영향력이 훨씬 커지지 않을까?

### 공동취재에서 방송기자가 디지털 기사를 담당할 것도 이채롭다.

20년 넘게 방송기자 생활을 했지만, 1년 남짓 써본 디지털 기사에 더 큰 매력을 느낀다. 방송뉴스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내용도 찬찬히 깊게 풀어낼 수 있어서 심층보도에 제격이다. 처음에는 이렇게 길게 쓰면 몇 명이나 볼까 걱정했는데, 스토리텔링만 잘하면 아무리 긴 기사도 열독해주는 수요층이 존재함을 알게 됐다.

### 베테랑 방송기자가 방송 뉴스보다 디지털 기사에 더 매력을 느낀다니 한편으로 씁쓸한데.

그동안 총으로만 싸웠는데 이제는 칼도 쥐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예컨대, 온 국민의 분노를 자아낸 '삼성물산-제일모

직 합병과 국민연금' 이슈를 방송 뉴스는 한참동안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숫자가 많고, 그림이 안 되고, 내용이 복잡하고, 시청률이 떨어질까봐서였다. 디지털 기사로는 얼마든지 다룰 수 있다. 시청률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뉴스에서만큼은 더 이상 '한국방송공사'가 아닌 '한국언론공사'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멀티플랫폼 시대에 우리는 더 이상 방송기자가 아니다. 그냥 기자일 뿐이다.

### 앞으로도 계속 기사를 쓸건가?

이번 기사를 쓰고 나서 제보가 몇 건 들어왔는데 방송 뉴스로 소화하기 어렵지만 디지털 기사로는 욕심나는 소재들이 있다. 본연의 업무에 방해되지 않도록 감당할 수 있다면 틈틈이 써보고 싶다. 정년까지 10년 넘게 남았는데, 보직을 몇 년이나 하겠나? 어느 자리에 있든 기사를 쓸 수 있게 해주고 그걸 많은 독자들에게 노출해주는 플랫폼이 있다는 자체가 기자로서 감사한 일이고 금쪽같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보직은 짧고, 기사는 영원하지 않은가.

단신

# EBU(유럽방송연맹) 총회에서 2018 PBI 서울 총회 관심 뜨거워



지난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알바니아 티라나에서 제 80차 EBU(유럽방송연맹) 총회가 열렸다. EBU 준회원인 KBS는 올 10월 PBI(세계공영방송) 서울 총회의 개최사로서 PBI 홍보를 위해 참가하였다. 김영삼 국제협력부장은 현지에서 영국 BBC 토니 홀 사장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토니 홀 사장의 PBI 서울 총회 참석을 확정지었다. BBC 사장의 PBI 참석은 수년 간 없었으며 매우 이례적이다. 최근 한반도 화해 정세와 더불어 KBS의 적극적인 홍보로 PBI 서울 총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EBU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은 2018 PBI 서울 총회는 오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KBS 주최로 열리게 된다. 이번 EBU 총회에는 영국 BBC, 프랑스 FT, 일본 NHK, 이탈리아 RAI, 독일 ZDF, 루마니아 ROR 등 EBU 주요 방송사 CEO 및 관계자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KBS는 EBU 준회원으로 여름 총회에 매년 참가하고 있다.

## KBS 전주총국, 방송 80주년 기념 'KBS 갤러리' 개관



전주총국은 방송 80주년을 맞아 지난 6월 27일 'KBS 갤러리'를 개관하고 특별기획 전시회 '선비의 숨결 사군자展'을 마련했다. 흥선대원군의 석란도를 비롯해 강암 송성용, 의재 허백련, 소치 허련, 해강 김규진 선생 등 근현대사의 삶과 애환을 매란국적으로 그려낸 선비들의 사군자 작품 40여 점이 전시 중이다. 전시 작품 대부분은 옛 선비들의 삶의 철학과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보물급 희귀본 들이다. 이번 특별 기획 전시회는 8월 26일까지 진행된다.



## 제 18대 방송기술인협회장, 김준성 사우

제 18대 KBS 방송기술인협회장에 김준성 사우가 선출됐다. 공채 23기로 입사한 김준성 신임 협회장은 5월 4일 실시된 협회장 선거에서 두 명이 출마한 가운데 53.87%로 당선됐다. 신임 김준성 협회장은 "KBS가 가지고 있는 자산인 지상파방송플랫폼의 고도화와 가치 제고뿐만 아니라 다매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우리가 새롭게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KBS 한국어 포스터, 특별 전시회 개최

KBS 아나운서실이 서울시민청과 함께 7월 2일(월)부터 8일(일)까지 1주일동안 시민청 시민플라자에서 '2018 KBS 한국어 포스터 특별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KBS 한국어 포스터 30여 점이 한자리에 전시됐다. 또 '마음을 사로잡는 효과적 말하기'란 주제로 김은성 아나운서의 특강도 마련됐다.

## 하반기 본사 당직제도가 바뀝니다

7월 1일부터 본사 직원들의 당직 근무가 없어졌다. KBS는 6월 29일 KBS시큐리티와 본사 당직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운영에 들어갔다.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시행에 따라 직원들의 근로 시간 단축을 감안한 이번 결정은 사내 유관부서간의 다양한 협의와 유사한 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대외기관의 자문을 받아 약 3개월간 준비기간을 거쳤다. 9개 지역총국과 강릉, 울산국의 당직 또한 2005년부터 2015년도까지 KBS시큐리티에 순차적으로 위탁 이관돼 현재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탐사보도부, 이달의 방송기자상 수상

다시 태어난 KBS 탐사보도부의 첫 탐사보도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 조사가 방송기자연합회가 선정한 제116회 기획보도 부문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심사평에서 결코 쉽지 않은 전수조사를 통해 국회의원의 해외출장에 관한 실정을 적나라하게 파헤쳤다고 높이 평가했다.



언니들의 신나는 아침 수다!

# 그녀들의 여유만만

**<여유만만> 대개편, 그녀들의 아침을 책임집니다**

매일 아침 건강, 살림, 재테크 등 다양한 정보로 하루를 열었던 <여유만만>이 <그녀들의 여유만만>으로 새롭게 변신한다. <그녀들의 여유만만>은 '30대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기존 아침 프로그램이 넓은 범위의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그녀들의 여유만만>은 타겟 시청층을 '인터넷과 모바일에 익숙한 30대 여성'으로 확 좁혔다. 타겟에 맞춰 방송 콘텐츠도 진화한다. 진행자가 오픈 채팅방을 열어 시청자와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모바일 토크쇼가 진행되고, 홈페이지와 SNS로 들어온 시청자들의 의견을 바로바로 프로그램에 반영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그녀들의 여유만만>은 영향력 있는 SNS 콘텐츠로 재가공 되어 더 많은 시청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김보민, 이선영, 조수빈 등 막강 KBS 아나운서 6인방 출격**

최고의 입담을 자랑하는 KBS 아나운서 김보민, 이선영, 조수빈, 김민정, 이슬기, 이재성 아나운서가 <그녀들의 여유만만> MC로 나선다. 6인 MC들은 30대 여성들의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30~40대 KBS 아나운서들로 구성되었다. 아나운서 6인방은 매일 MC이자 패널로 핫 이슈, 강연, 요리, 여행 등 30대 여성들의 입맛에 꼭 맞는 코너를 이끌며 시청자들과 소통한다. MC들의 맛깔 나는 진행 실력은 물론이고 이들의 유쾌하고 진솔한 삶의 이야기 역시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매일 새로운 이슈가 쏟아지는 시대, <그녀들의 여유만만>과의 신나는 아침 수다로 하루를 시작해보자.

▶7월 16일 월요일 아침 9시 40분 첫방송, 2TV